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꽃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 벽)	19:00(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 09월 21일(화)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성전에 비치한 봉헌함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추석 미사 시간	아침 06:30, 낮 12:00
-------------	-------------------

- 추석 당일 만 미사 후 카페 앞 성체 분배 있습니다.
- 낮 12시 미사 후 음식 나눔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해는 없습니다.

● 알 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미사 재개 지침
 - 재개일 : 8월 9일 ~ 당분간
 - 참례 가능 신자 : 본당 신자, 공간별 10%
 - 미사 후 성체 분배 없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헌미헌금 2차 헌금 있습니다.
- 다음 주(09월 26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09월 22일(수) 사무실 휴무입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거리두기 4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및 안내 사항

	토요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9/19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09/26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가톨릭 교회의 특성?

-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분이신 주님,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세례, 하나의 몸을 이룸)
- 교회는 거룩합니다.(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
- 교회는 보편 됩니다.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교회)
-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파견하신 사도들 위에 세우심)
- 교회는 일곱 가지 성사로써 은총을 줍니다.(세례, 견진, 성체, 고백, 병자, 성품, 혼인)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09/2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7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9월08일 ~ 09월14일)

• 교 무 금		6,848,000원	
• 주일헌금		3,895,200원	
• 교구 내 성지개발 2차 헌금		529,000원	
• 감사헌금	유OO 10만원	김종성10만원	현정례 5만원
	전을경 5만원	황정후 5만원	지기홍10만원
	이승문10만원	박정순10만원	정애자10만원
	홍윤아 5만원	전월례 3만원	차OO 10만원
	김시아 5만원	염금선2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독 서	
09/19	최경희	하재민	한희숙
09/26	권태희	장익근	김명선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09/19	박승환	오광운	이운영	최석준
09/26	박용환	박승환	김영배	이운영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78. 우리는 다친 사람의 모든 상처에 사마리아인 행인과 같은 보살핌과 관심을 보이며, 아래로부터 그리고 사안별로 시작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고, 나아가 온 나라로 또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찾아 나섭시다. 상처 입을까 두려워 하거나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품어 안읍시다. 하느님께서 인간 마음에 심으신 모든 선이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기회지 목인으로만 이어질 수 있는 무기력한 체념을 위한 핑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보살피 줄 여관 주인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작은 개개인의 총합보다 강한 ‘우리’ 안으로 초대하고 그 안에서 함께 만나라고 부름받습니다. 다음 사실을 기억합시다. “전체가 부분보다 더 큼니다. 또한 전체는 그 부분들의 단순한 총합보다도 더 큼니다.” 무익한 배타주의와 끊임없는 대립의 원함과 웅졸함을 버립시다. 한탄하기를 그만두고 우리의 범죄와 태만과 거짓에 대한 책임을 집시다. 배상과 화해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79. 거리의 사마리아인은 인정이나 감사를 바라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헌신적인 봉사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하느님 앞에서 또 자기 삶 안에서 큰 만족이고, 그런 이유로 하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친 이들에 대한 책임, 곧 같은 민족이요 지상의 모든 민족인 이 다친 이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취약성을 연대와 배려의 자세로 곧 착한 사마리아인이 지녔던 이웃 됨의 자세로 돌봅시다.

국경 없는 이웃

80.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이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에서 ‘이웃’이라는 말은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도움은 그 누구보다 자기 집단과 자기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 들은 사마리아인이 멸시받을 만하고 불결하기에 도와주어야 하는 가까운 사람에 포함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이 전체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가 우리에게 가까운 이들인지 자문해 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웃이 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81. 예수님의 제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무리에 속할 수 있는지는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 경우 사마리아인은 다친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입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고자 모든 문화적 역사적 장벽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당부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차이를 내려놓고 고통 앞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가까이 다가가라고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도와줄 ‘이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